

가정의 달, 사랑 가득한 섬

모개도

높이 20m, 면적 31,473㎡의
개발가능무인도서

하늘에서 보면 하트 모양처럼 보여
'하트섬'이라고도 불린다.

다양한 곤충과 중대백로, 큰부리까마귀,
동박새 등의 바닷새가 관찰된다.

해양수산부는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에 위치한 개발가능무인도서*인 '모개도'를 2026년 5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선정하였다.

* 절대보전·준보전·이용가능 등의 3가지 유형에 해당되지 않고, 출입이 자유로우며, 일정한 개발이 허용(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·도지사 승인 필요)되는 무인도서

여수반도 서쪽 여자만 내에 있는 모개도는 여수항에서 약 18km, 순천만에서 남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다. 높이 20m, 면적 31,473㎡ 규모로 섬을 앞에서 바라보면 솔뚜껑이나 방패를 얹어놓은 모양으로 보이며,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푸른 바다 위에 떠 있는 '심장(HEART)'처럼 보인다.

모개도에 대한 명칭의 유래는 정확하지 않은데 호남 방언으로 모개는 과일 '모과'를 뜻하며, 섬의 울퉁불퉁한 모양이 모과처럼 생겨 '모개도'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지역에서 전해진다. 또한 최근에는 하늘에서 본 모양을 따서 '하트섬'이라고도 불린다.

모개도 해안은 회갈색의 암반 또는 자갈로 이루어져 있으며, 섬 내측으로 억새와 곰솔로 덮여 있어 봄부터 푸릇푸릇한 자연을 감상할 수 있다. 이 외에도 돈나무, 사철나무, 골무꽃 등이 자생하며, 다양한 곤충과 더불어 중대백로, 큰부리까마귀, 섬휘파람새, 동박새 등 바닷새가 관찰되기도 한다.

모개도를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와 인근 관광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 누리집 및 여수관광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